

초고속인터넷 증진에 관한 BEREC의 보고서 검토

정훈*

1. 개요

EC(European Commission)는 2011년 11월 23일 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한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에 대한 검토결과를 공개하였다. 여기서 EC는 현재의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 변경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이동전화는 시장기능에 의해 이미 이용성이 확보되고 있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할 필요성이 낮고, 초고속인터넷은 대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이어야 한다는 기준과 모든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할 필요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¹⁾ EC 수준에서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각 국가별로 초고속인터넷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맥킨지(2011)²⁾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의 사용자(전 세계 인구의 1/3)가 매일 인터넷에 접속하고, 1년에 약 8조 달러가 e-커머스(B2B와 B2C)를 통하여 거래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초고속인터넷의 경제적 중요도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실 부연구위원, 02-570-4068, hoon@kisdi.re.kr

1) 나상우(2012)

2) McKinsey Global Institute(2011)

세계 각국들은 초고속인터넷의 증진과 활성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유럽전자통신 규제기구인 BEREC(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이하 BEREC)³⁾은 2012년 2월 23일 ‘Broadband Promotion Report’를 발표하였다. BEREC은 이 보고서를 통하여 초고속인터넷의 확산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역, 국가, EU 수준에서의 정책과 규제의 역할을 분석하여 정책 입안자들에게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수요 측면에서 초고속인터넷의 증진 및 확산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BEREC의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2. 주요 내용

(1) 국가별 초고속인터넷 정책

초고속인터넷의 국가적인 발전을 위하여 17개⁴⁾의 규제기관들은 각 국가에서 국가적인 초고속인터넷 전략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 규제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전략은 대부분 접속과 커버리지 목표와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초고속인터넷의 확산을 고려할 때 시골지역을 주요 관심대상으로 삼고 있다. 16개⁵⁾의 규제기관들은 사업자들이 투자할 가능성이 낮은 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 주도의 전략을 펼치고 있다.

15개⁶⁾의 규제기관들은 각각의 국가에서 소비자들이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증진을

3) 유럽연합 산하 27개 회원국의 통신산업 규제를 총괄하는 통합 규제기관. BEREC은 유럽 회원국 간 의견교환의 장으로 기능하던 기존의 ERG(European Regulators' Group)를 대체

4) 체코, 에스토니아, 프랑스, 마케도니아,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터키, 영국

5) 불가리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프랑스, 스웨덴, 영국

6) 벨기에, 크로아티아, 덴마크, 마케도니아,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몰타,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 스웨덴, 터키, 영국

위한 전략으로 인해 편익을 얻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전략들에는 월 사용료 부담 또는 컴퓨터 구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보조금 지급(특히 교육 시스템과 관련이 깊음. 학생이나 교사들에 대한 대출이나 보조금 지원), 또는 초고속인터넷의 편익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등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전략들은 취약한 사회계층인 노인, 저소득 가정, 장애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규제기관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 공급 측면에서의 전략은 보편적 접근 영역, 초고속인터넷 목표의 평가, 국가 보조와 보조금에 관련된 자금 조달에 대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수요 측면의 전략은 주로 교육적 목적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관련되어 있다. 정보에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 소비자 보안과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들이 포함된다.

(2)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전략

대부분 사업자들이 유선과 무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과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략들은 사업자와 국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서비스 기간, 포함된 서비스, 목표 가입자 수, 할인을 등을 사용한 전략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가격 할인은 매우 일반적인 전략인데, 월 사용료뿐만 아니라 접속료와 장비 가격에도 적용할 수 있다. 거의 모든 규제기관들은 유선과 이동 초고속인터넷 모두가 결합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많은 국가들에서 결합판매가 유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판매를 위한 주요 수단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유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결합판매에 더 적합하다는 것이 가능한 설명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동일한 설비가 초고속인터넷, 유선 음성 서비스, 유료TV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반면, 무선 초고속인터넷의 경우에는 결합판매가 두드러지지 않는데, 이는 결합판매에 유료TV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과 관련된 이슈 때문이다. 또 다른 가능한 설명은 무선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개

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유선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 공공-민간 파트너십

15개 국가의 규제기관들은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이 초고속인터넷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 비록 공공-민간 파트너십이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공통적으로 관련 지역의 부분 또는 전체 시민들에게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 시골지역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는 것, 초고속인터넷 발전을 자극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 e서비스를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정보 기술을 사용할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 공중 인터넷 접근 장소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4) 공급과 수요 측면의 장애

유럽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증진하는 데 있어 낮은 투자수익률이 공급 측면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자금 부족과 주파수 부족과 관련되어 있고, 그 정도는 국가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규제기관들은 수요 측면의 장애요인으로 인해 사람들이 초고속인터넷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사람들은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골지역에서는 사업자의 선택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유럽의 초고속인터넷을 증진 및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BEREC은 보고서에서 수요 측면의 장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요 측면의 조치들을 정의하기 위해서 BEREC은 최근에 IRG(Independent Regulators Group)가 FSR(Florence School of Regulation, Communications and Media)에 의뢰한 연구를 참고하였다.

〈표 1〉 초고속인터넷 확산을 위한 수요 측면의 정책

장애	정책	수행 주체
초고속인터넷 사용의 높은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 계층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들을 위한 보조금과 세금 혜택 컴퓨터를 구입하는 저소득층 또는 학생들에 대한 보조금과 세금 혜택 수요 종합 정책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규모의 경제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계약 관계에서의 소비자 신뢰 부족과 낮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도 또는 규제기관이 관여하는 국가 수준의 투명성 의무 시행 소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항에 대한 설명 정확한 요금 청구를 위한 모니터링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와 규제기관 정부, 규제기관, 소비자단체 정부, 규제기관, 사업자, 장비제조사
다양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선택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격과 서비스와 같은 중요한 요소의 비교를 촉진하기 위한 투명성 증대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기관과 소비자단체
초고속인터넷 사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국어로 된 콘텐츠의 생산 장려 정책 온라인 공공서비스와 e정부의 활성화 거래의 안전이 확보되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콘텐츠 공급자 정부, 지방자치단체, 규제기관, 사업자 정부, 지방자치단체, 장비제조사, 규제기관, 국제기구(ITU, ETSI, ENISA 등)
낮은 디지털 활용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고속인터넷 사용의 이점에 대한 이용자 교육을 위한 디지털 문맹 캠페인 학교 초고속인터넷 요금의 할인 정책 디지털 활용 능력과 초고속인터넷 사용 정보센터 낮은 디지털 활용 능력의 사람들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과 교사 교육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지방자치단체, 규제기관, 소비자단체, 사업자 정부, 지방자치단체, 규제기관, 소비자단체, 사업자 정부, 지방자치단체, 규제기관, 소비자단체, 사업자 정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사업자

자료: BEREC(2012)

FSR 연구 결과 중 하나는 공공 정책들과 규제 행위의 순서가 그것들의 유효성 결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초고속인터넷 증진을 위한 정책의 영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공급 측면의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 수요 측면의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수요 측면의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의 수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BEREC은 초고속인터넷 증진을 위한 수요 측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수요 측면의 정책을 앞의 <표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3. 결 어

유선망과 무선망이 점차 ALL IP망으로 진화됨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초고속인터넷의 확산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망의 확산이나 발전과 같은 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의 정책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THE WORLD BANK(2011)도 초고속인터넷의 확산과 증진을 위해서는 초고속인터넷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이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초고속인터넷 확산을 위해서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BEREC은 초고속인터넷의 확산 및 증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이 더 쉽게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도록 하고, 더 많은 편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공급 측면의 정책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나상우 (2010), “디지털시대의 보편적서비스에 대한 EC의 공개자문 동향”, 《방송통신정책》, 제22권 8호 통권 484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BEREC (2012). “Broadband Promotion Report”.
- Florence School of Regulation, Communications and Media (2011). “Study on Broadband Development: Drivers and Policies(commissioned by the IRG)”.
-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1). “Internet matters: The Net’s sweeping impact on growth, jobs, and prosperity”.
- THE WORLD BANK (2011). “BROADBAND STRATEGIES HANDBOOK”.